

# 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7B -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교회, 그리고 십자가 모양의 삶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7b 강의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제자도의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은 매우 유익하며, 주석적, 신학적 문제뿐 아니라 해설적 질문들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 3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째, 각 장에 대한 설명에는 몇 가지 설명적인 생각들이 포함됩니다. 둘째, 그 장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몇 가지 주석적, 신학적 질문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13장, 51장, 52절에서 예수님의 비유적인 왕국 가르침을 이해한다고 확인했지만, 여기서 그들의 생각은 왕국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해 15장 13절과 14절에서 경고하신 것과, 14장과 15장에서 4천 명과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신 놀라운 두 가지 사례를 망각합니다. 첫 번째 기억 상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둔화시켜,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왕국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영적 갈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빵과 같은 현세적인 문제에 몰두했고, 두 번째 기억 상실을 범합니다.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은 예수님의 누룩 비유를 자신들의 빈배와 연관 짓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15:1-14)과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제기하는 치명적인 위험과는 무관합니다. 12장 14절을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인내심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누룩 비유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그들의 기억을 자극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가 두 번이나 기적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남겼던 일을 떠올린다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강력하게 반대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식량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 꾸지람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절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걱정에서 사로잡혀 영원한 왕국의 가치를 잊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처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심지어 기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1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 싸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이러한 기억은 하나님 백성의 정신적, 영적 집중력을 더욱 예리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제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베드로의 메시아 신앙고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론과 교회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강해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할 수 있으며,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32페이지 하단에서 이 부분을 강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16장 14절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16장 15절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은 16장 16절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17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왕국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책이 쓰였고, 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말하자면 거리의 소문을 이해하도록 하신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절에서 19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번에는 옳은 답을 내놓았는데, 이는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자들이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이 옳은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 기쁩니다. 하지만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아적 비밀 모티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혁명적인 인물로서 로마인들을 따돌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이에 대한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2장에 인용된 이사야 42장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무리를 모아 자신을 따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6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적들을 선동하거나 폭도들을 선동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16장 21-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마태복음 서사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16장 21절은 마태복음의 세 번째 주요 부분을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는 킹스버리와 데이비드 바워의 논문에서도 나타나는 견해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삼중적 관점은 본 주석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알리신 첫 번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수난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의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날 거의 모든 일이 16장 21절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은 베드로에게서 곧바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는 16장 16절에서 이전에 감동적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22절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베드로는 16장 17절에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16장 23절에서도 강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6장 16년에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었고, 16장 22절의 그의 말은 악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6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항상 모범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서 벗어나 제자들 전체에게 면류관보다 십자가, 영광보다 고난, 통치보다

섬김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 만연했던 사고방식을 대변했으며, 그들 모두는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석과 신학적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반응하면서 그들과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장 7절, 9장 3절, 11장 34절, 12장 2절, 10절, 그리고 14장 24-38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제자들은 대립을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대립을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15:1, 16:1, 19:3, 21:23, 22:23, 22:34와 같은 구절들을 살펴보세요. 16:1-4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부분은 12:38과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6:5-12). 이는 아마도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16:13-20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며, 이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6:21-30). 이 장은 바리새인들의 반대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반대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16:21). 예수님께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명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16:8).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공동체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16:16-18). 그들의 미래는 예수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차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16:24-28).

좋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논의하기로 선택한 주해적, 신학적 문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구절인 16장 13-20절의 주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요단강 상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께서 이 여정을 시작하셨을 때 정확히 어디에 계셨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질문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대중의 합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1세기에 존재했던 메시아에 대한 추측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한 세례자 요한과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견해는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말론적 날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였다는 추측은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연관성은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고 당대 성전 지도자들을 반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의 일부 유대인들이 신명기 18장 15-18절을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긍정적이지만,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예언자적 사자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들의 이해는 극도로 피상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16장 15-17절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대신하여 대답하고, 16장 17-1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의 대변인으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 되심을 연결합니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연결되는 구약 성경적 배경은 사무엘하 7장 14절, 역대상 17장 13절, 시편 2장 6-8절과 12절, 그리고 시편 89편 27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를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혼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은 것은 베드로의 특별한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질문은 베드로 고백의 핵심 주제를 다시금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충실한 고백이 복음의 기독교론적 정점이라면, 대제사장의 분노에 찬 질문은 분명 최악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참하나님을 열방의 거짓 신들과 암묵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이제 1618-20년, 베드로의 강력한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서 베드로의 기초적인 권위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여기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단 두 번 나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자들의 대변인이자, 성장하는 교회, 곧 태어날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로 언급하고,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그 성으로 통하는 열두 문을 제시하고, 열두 사도를 그 성의 열두 기초로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요한계시록 21장 14절).

베드로를 어떤 의미에서 반석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이며, 예수님이나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여기는 반동적인 견해보다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실 교회가 악한 세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데스의 문은 아마도 이사야 38장 10절에 나오는 스올의 문과 유사하게 사탄과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18-19절에서 교회와 천국 열쇠를 연결하신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 권세를 행사하는 기관임을 시사합니다.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사야 22장 2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권세는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즉 묶는 것과 푸는 것을 다룹니다. 랍비들은 금지된 행위를 묶는 것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푸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지, 주해적 또는 교리적 선언, 즉 공식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교회 권징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교회의 결정이 하늘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지, 아니면 하늘의 결정이 교회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묶거나 금지하고, 잃거나 허락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몇 분 전에 했던 고백을 충실히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순간 이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는 것을 금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메시아를 단순한 정치적 인물로만 여기는 군중의 흥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원칙에 점점 더 반대하는 데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6장 18절의 반석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주해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 세기 동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고 베드로로부터 사도적 계승이 있었다는 가르침에 반박하며,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반석이였다는 뜻이 아니라고 종종 주장해 왔습니다. 렌스키와 같은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언급하셨거나, 맥닐의 주석에 따르면 베드로의 고백록을 교회의 기초로 언급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더 최근에는 건드리의 주석에서 16장 18절이 7장 24절을 암시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7:24는 16:18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암시는 매우 미묘합니다. 베드로를 뜻하는 그리스어 '페트라스'는 남성형이고, 바위를 뜻하는 그리스어 '페트라'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유일 뿐이며, 문법적 일치나 정확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페트라가 반석을, 페트라스가 개별적인 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미묘한 어휘적 구분이며, 비교를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은유적 표현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정체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은 유사성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라는 은유는 예수님의 가르침(7장 24절), 예수님 자신(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리고 회개(히브리서 6장 10절)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그 실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은유가 가리키는 실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개별적인 맥락이 결정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말장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편집증(paronomasia)'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방금 베드로에게 붙여 주신 별명, 4장 18절, 그리고 10장 2절을 빗댄 말입니다. 이 말장난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독특한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베드로의 미래 역할 또한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축자로 묘사하십니다. 베드로의 사도적 신앙고백 또한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백하는 사도로서 그가 그 토대입니다. 베드로만이 토대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곧 동등한 자들 가운데 으뜸가는 자로서 베드로가 그 토대입니다. 문맥상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사도 전체를 대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맥락에 가장 잘 부합하며, 에베소서 2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처럼 교회의 사도적 토대를 언급하는 다른 신약 성경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침례교 주석가 브로더스는 1886년에 이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의 주석을 참고하십시오. 최근 복음주의 주석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블롬버그, 카슨, 프랑스, 해그너.

로마 가톨릭의 베드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개신교인들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로마의 초대 주교였던 베드로로부터 유일한 사도 계승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마태오 복음서 본문에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우려를 분명히 주입하는데, 마태오 복음서 본문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사실이나 다른 기독교 교회에 대한 로마 교회의 수위권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을 대표하여 말하고 종종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태오가 베드로의 무오류성이나 교회 내 유일한 권위라는 개념을 지지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15:15, 16:6, 17:4, 25, 18:21, 19:27, 26:33-35와 사도행전 11:1-18, 갈라디아서 2:11-14와 같은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 자신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수석 목사, 즉 수석 목사, 폰티팩스 막시무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4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16:19에 있는 열쇠와 묶고 푸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이자 왕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초와 열쇠의 은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왕국을 분리할 수 없지만 전자인 교회가 후자인 왕국이 지상에 확장되는 기관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근본적인 교회적 역할은 열쇠를 다루는 것을 통해 수행되는데, 이는 그들이 왕국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과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3장 7절, 9장 1-6절, 20장 1-3절과 같은 열쇠에 관한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권세는 매고 푸는 것을 통해 행사됩니다. 학자들은 매고 푸는 것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열쇠가 교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권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를 통제합니다.



다른 이들은 마태복음 16 장 19절과 18장 18절을 비교하여 교회 내의 규율을 묶고 푸는 권세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랍비 유대교에서 묶거나 푸는 행위는 종종 개인의 행동 영역, 소위 할라카(halakha)에 대한 성경법의 신중한 해석에 적용되었습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해석하면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의 해석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6:16을 18:18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맥락은 공동체의 유지에 관한 것이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18:18에 나오는 매고 푸는 행위는 공동체의 기능입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랍비적 용법으로 묶고 푸는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랍비적 용법이 마태복음보다 적어도 수백 년 후의 것이며, 다른 종교적 맥락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마태가 묘사하는 이미지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다룹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지도자들이며, 그 역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진리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이 굳게 닫히고 잠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그너는 그의 주석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축복받은 고백자에서 책망받는 적대자로 급격히 타락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잠시 동안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막으려 했기에 사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4장, 특히 8절과 9절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경험하신 것은,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탄에게서 경험하신 것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말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예수님 재림 때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깨닫지 못합니다.

16:27, 로마서 8:18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락한 삶을 살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23-26을 보십시오. 겐보기에 자기 과시의 유혹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조차도 세베대의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주기적인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20:20-28. 이 세상 통치자들의 가치관과 본보기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려 위협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20:25-26. 이것은 베드로가 16:22에서 실수를 저지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 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여 말했고, 이 후반부에서도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옳을 때는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였고, 틀릴 때도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 첫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말씀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실수는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충실한 제자들에게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기와 19장 27-2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상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본보여 주신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기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언급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들의 자기 부정의 삶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분명히 언급합니다(13장 40-41절, 24장 30-31절, 25장 31절, 26장 64절). 그러나 16장 28절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가 살아서 인자가 그의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베어와 같은 자유주의 주석가들이 말하듯, 예수님과 마태가 틀렸거나, 여기서 언급된 소위 '재림'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당연히 두 번째 가설을 채택하여 예수님께서서 변형(브롬버그는 변형),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또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16장 28절을 그리스도의 장래 영광에 대한 일반적인 예언으로, 부활, 승천, 오순절, 그리고 현재의 천상 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려고 시도합니다. 카슨, 프랑스, 헨드릭슨, 모리스는 모두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견해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변형을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말씀하십니다. 16장 28절에 비추어 볼 때, 17장 1절에 따르면 불과 6일 후에 일어난 변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키너는 자신의 주석에서 변형이 종말론적 영역 전체를 예고적으로 소개한다고 말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변형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17:2, 5),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었고 예수께서 미래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영구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6:28에서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7:1에 따라 변형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변형의 일시적인 영광에 참여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강력하게 지상에 오신다는 진실을 확증하는 기대로 생각하는 듯합니다(베드로후서 1:16-18). 이 본문은 10:23과 비슷한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10:23에 대한 해설과 우리의 초기 강의에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이며, 영적으로 고양되는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베드로 같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